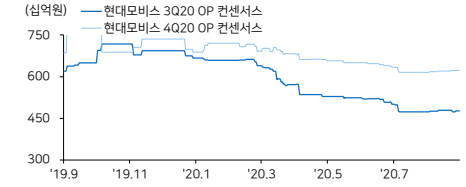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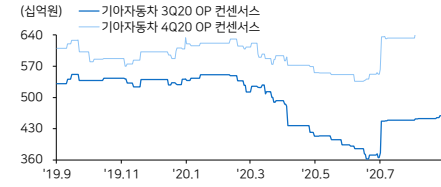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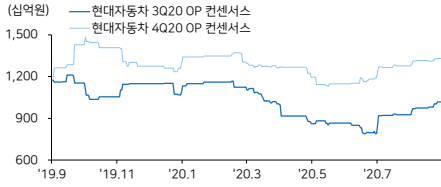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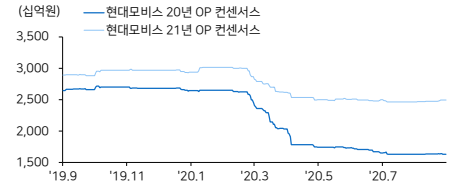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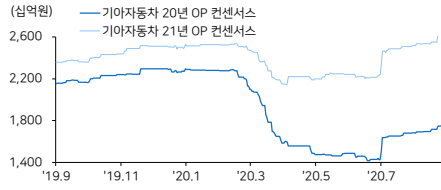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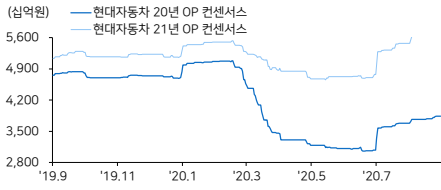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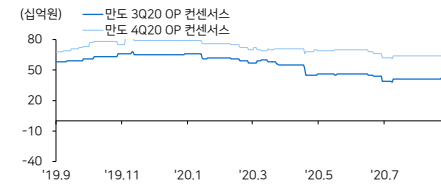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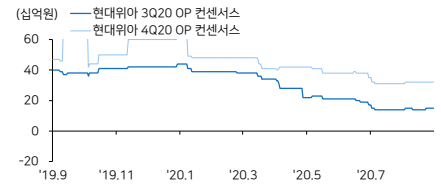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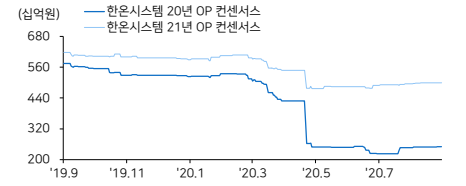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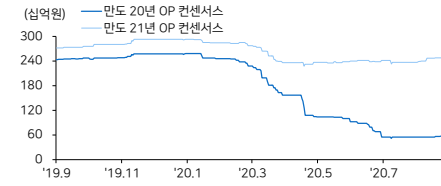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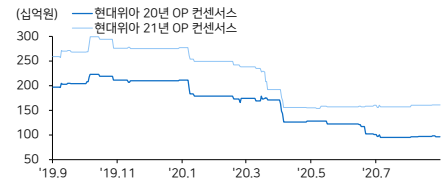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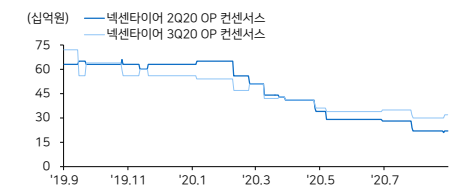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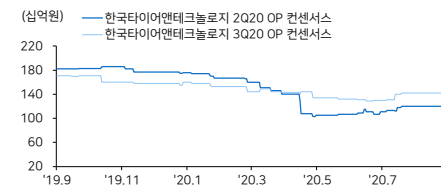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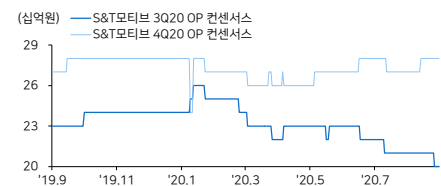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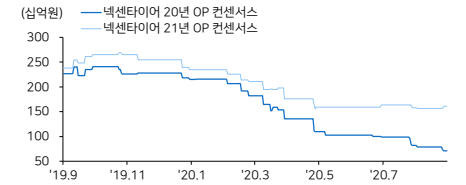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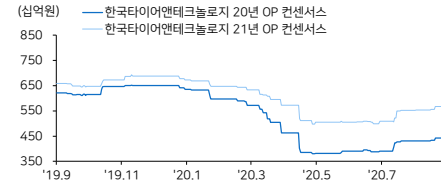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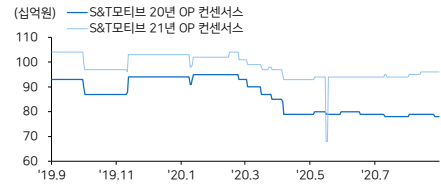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28일 사전계약 돌입 (오토타임즈)

현대자동차가 28일부터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가격은 모던 2,857만원, 프리미엄 3,073만원, 인스퍼레이션 3,467만원.
<https://bit.ly/32YGeNg>

"중형 세단 최초 적용"...현대차, 쏘나타 N라인 이미지 공개 (한국경제TV)

현대차는, 쏘나타 N 라인의 외장 이미지를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중형급 세단에 N 라인 트림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쏘나타 N 라인인 선보인 디자인에 걸맞게 주행성능도 강화돼 일반 모델과 차별화.
<https://bit.ly/2S6dRGJ>

"내연기관차보다 싼 전기차"...배터리 키우는 머스크의 야심 (아시아경제)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3년 내 2만5000달러(약 2900만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음. 전기자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생산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것.
<https://bit.ly/3m08FoY>

1위안에 매각된 '국민차'...로컬 자동차 출도산 위기 (아주경제)

한때 중국에서 '국민차' 대접을 받던 자동차 기업이 단돈 1위안(약 171원)에 매각되는 수모를 당함. 위기에 처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단면. 이 밖에도 경영난에 신음하는 업체가 많아 출도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
<https://bit.ly/3corqGT>

제네시스, 전기차 eG80 뉴르부르크링서 뚫힌 테스트 (더그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 'eG80'의 테스트 모습이 포착됐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 제네시스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 eG80의 주행 테스트를 독일 뉴르부르크링에서 진행중.
<https://bit.ly/363tzKK>

테슬라, 미국 행정부에 중국산 부품 관세 철폐 소송 제기 (아시아타임즈)

테슬라는 이날 미국 정부 모델3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적" 조치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
<https://bit.ly/3355bZT>

"600조 시장 잡아라"...차 자동차장비업에 물리는 IT공룡들 (아주경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거대 기술기업들이 최근 자동차 정비 시장에 뛰어들. 수익대에 달하는 중국 자동차가 노후되면서 서 시장 진입이 밝다는 판단에서임.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디지털 자동차 정비'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
<https://bit.ly/2RZqu61>

California to Ban New Gasoline Cars by 2035, a First in U.S. (Bloomberg)

California will phase out sales of new, ICE cars by 2035 as part of its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 the first state to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traditional automobile.
<https://bloom.bg/3kEXsr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